

투기는 피하고 산지가공성 고려

특용작물 선택은 자გი지역의 입지조건에 알맞는 작물과 품종을 선정하여 농업경영을 합리적으로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기상변화가 뚜렷하고 작물의 종류도 대단히 많은 실정이므로 지역별 주산단지를 조성하여 생활필수품 또는 중요한 가공원료로서 용도를 가지고 있는 작목과 우리나라 고유의 특산품으로 각광을 받는 작물을 선택하여 재배함으로써 앞으로 닥아올 율림피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거나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특용작물을 도입하여 농업경영을 합리화하려면 적지적작(適地適作)의 원칙에 따라 그 지방의 기후와 토지조건에 알맞는 종류와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 기술과 수확, 조제, 가공방법 등을 잘 파악하여 재배하도록 한다.

동국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김 경 제

특용작물의 종류

특용작물은 일명 공예작물(工藝作物)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전분작물(澱粉作物)로써 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이 있고 유료작물(油料作物)에는 참깨, 들깨, 아주까리, 해바라기, 땅콩 및 콩 등이 있으며 섬유작물(纖維作物)에는 목화(木花), 대마(大麻), 아마(亞麻), 모시풀(苧麻), 어저귀(靑麻), 왕골(莞草), 케나프, 골풀(蘭草), 수세미 외, 닥나무, 고리버들(杞柳) 등이 있다. 기호작물(嗜好作物)에는 담배, 차(茶) 등이 있으며 약

초작물(藥草作物)에는 목단(牧丹), 지황(地黃), 시호(柴胡), 당귀(當歸), 인삼(人蔘), 황기(黃芪), 길경(桔梗), 맥문동(麥門冬), 작약(芍藥), 만삼(蔓蔘), 감초(甘草), 지모(知母), 반하(半夏), 패모(貝母), 일황련(日黃連), 천중(川芎), 택사(澤瀉), 두충(杜仲), 오미자(五味子), 연교(連翹), 구기자(枸杞子), 산수유(山茱萸), 오수유(吳茱萸) 및 산조인(酸棗仁) 등이 있고 당료작물(糖料作物)에는 사탕무, 사탕수수 등이 있으며 기타 특용작물에는 호프, 박하, 제충국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대단히 많은 종류의 특용작물 중 자기 지역에 적합한 작목을 선택재배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농설계를 세밀히 작성하여야 한다.

특용작물 재배상 문제점

특용작물을 도입하여 농업경영을 합리적으로 실시하려면 앞에 설명한바와 같이 작물의 종류와 품종의 선정, 재배후 생산물의 수확, 조제, 판매에 도달하기까지의 취급 등에 관하여

시작하기 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확실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착수하여야 한다. 그러면 새해 영농설계에 특용작물을 재배코자 하는 여러분에게 경영상 주의하여야 할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1) 특용작물은 자연환경조건에 대한 지역성이 큰 작물이 대부분이므로 적지에 적합한 작물을 선정하여야 한다.

즉, 특용작물 중에는 일반적으로 기후나 토질 등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작물이 많다. 예를 들면 모시(苧麻)는 호남지방과 경남 남해지방 및 충남 서천지역에 대부분 재배하고 있으며 박하는 전으로부터 전남북지역과 충남지방에서 주로재배 생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 지방의 기후풍토가 모시나 박하재배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유전자 중심설에 의하면 자생하는 작물을 선택 재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작목선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에 부적당한 작물을 도입하게 되면 소기의 수확량을 얻을 수 없게 되어 결국은 경제적으로 재배

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산지가공을 고려하여 선택

2) 특용작물의 생산물은 대부분 조제나 가공과정을 거쳐서 상품화되는 예가 많으므로 부락이나 읍·면의 공동가공 시설로서 산지가공(產地加工, 새마을공장 등)을 실시하여 가공수입 까지도 농촌에 남김과 동시에 부산물의 적절한 사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용작물 중에는 비교적 간단한 시설만 갖추어 산지가공(產地加工)이 가능한 것이 많으므로 공동가공 시설을 설치하여 적어도 제 1차 가공만이라도 직접 생산지에서 실시하는 것이 매우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박하의 생산지에서 건초(乾草)형태로 원유제조업자(原油製造業者)에게 판매하는 것이 습관화되다시피 시행되고 있으나 이것을 공동으로 능율이 높은 증유설치(蒸溜設置)를 하여 원유(原油)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뿐만 아니라 증류할 때 나오는 증유박(蒸溜粕)을 가축의 사료 또는 비료로 매우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박하의 10a 당 수량은 일반적으로 건초로써 750kg정도인

데 여기에서 나오는 원유는 6kg ~ 9kg 정도로 나머지는 거의 전부가 증유박인 것이다. 이 증유박은 가축의 사료 특히 유우(乳牛)에 주면 유량이 증가하고 유질을 양호하게 하는 등 매우 좋은 사료가 될 수 있으며 또 농작물의 비료로서 사용하는 것도 매우 유리한 방법이다. 이렇게 박하재배를 매우 유익하게 경영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기타 특용작물의 경우에도 재배와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의 활용까지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가격이 안정된 것을 선택

3) 특용작물은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의거하여 가격의 변동이 매우 심한 경향이 있으므로 거래사정 특히 가격의 동향에 주의하여 투기적재배는 심히 위험하므로 재배의 적정규모가 검토되어야 한다.

특용작물 가운데는 모시, 아마, 호프 등과 같이 공업원료로써 수요되는 일반회사와 계약재배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작물은 상당히 복잡한 거래사정으로 인하여 판매시에 가격의 변동이 비교적 심한 실정이다. 어떤것은 투기적 경향이 큰 작물도 있다. 그리고 일부작물 중에

는 예년의 고가로 인하여 갑자기 재배면적이 급증되어 증산된 결과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다음해에는 감산(減産)되어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생산량의 증감이 반복되는 특수작물도 있다. 그러므로 재배할 농가에서는 장기와 단기에 가격의 동향추세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배계획을 세우는데 생산물의 출하 최성기와 단경기(端境期)의 가격의 높고 낮음 등 계절적인 변동도 비교적 심하므로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참작검토하여 신년도 재배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품종이나 우량품종을 선택

4) 특용작물은 가능한한 신품종이나 우량품종을 선택하여 재배함으로써 품질과 규격의 개선과 통일을 도모해야 한다.

재배지역의 기후조건과 토양조건 및 재배목적에 합당한 우량품종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타 작물에서도 마찬가지다. 가능한한 시험연구기관에서 새로이 육성 보급하고 있는 신품종은 각기 육종 목표가 상이하므로 이에 적합한 것이 도입되지 않으면 생육은 물론 특성이 발휘될 수 없게 되는 것이

다. 또 수확물을 제값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품종을 통일하고 품질과 규격을 일정하게 하여 공동판매를 실시하는 것이 유리한 경영이 될 것이다.

협동체제로 운영하도록

5) 가능한한 집단재배를 실시하여 생산자의 협동체제를 구비하여야 한다

특용작물 생산물의 품질과 규격의 개선 및 통일과 공동이용 시설에 의한 가공, 수급 상황과 거래사정, 시세 등의 조사와 새로운 판로의 개척, 생산이나 판매개선을 위한 소요경비의 조달 등 생산자의 협동에 의한 경비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용작물을 발전적으로 건설하게 경영하기 위해서는 그 원동력이 생산자의 협동조직 구성에 의해 활발한 행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농한기 유희노동력 활동강구

6) 특용작물은 농촌 노동력의 계절적 분배조절과 농한기 유희노동력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 개선을 도모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주작물재배와 겹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계절성을 경감시킬수 있는 특용작물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대량생산 및 시장성 감안

7) 가능하면 앞으로 대량생산을 해도 시장성이 있는 작물이어야 한다.

특용작물은 대부분 가정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많으므로 품질과 규격이 일정하고 균일한 생산물의 대량생산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예를 들면 박하재배의 경우 증유장치의 시설을 이용하는 점에서 최소한 12,000평~15,000평 정도의 재배면적으로 집단화 시키지 않으면 유리하게 경영하기가 곤란하다고 보는 바이다.

이상과 같이 특용작물은 각 작물마다 특징이 뚜렷함으로 그 특성을 잘 이해한 다음 도입재배

하도록 해야 하며 수급 및 판로 등도 충분히 검토하여 착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용작물은 환금작물이므로 수익성이 높은 작목을 원하지만 당장 눈앞의 가격에만 치중하여 투기적인 재배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전국 각계에서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나 거래사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투기적인 재배를 실시하여 큰 손해를 보는 농가도 허다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특용작물은 어디까지나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작물을 도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쓴 농약빈병

한데 모아 환경보전